

강원일보(<http://www.kwnews.co.kr>) 2018년 6월 27일 기사입니다.

“회원사간 활발히 교류 협력체계 구축”



1차 정기회 백향우드서 개최 회원사 확충 논의·공장 견학

도내 우수 중소기업인 모임인 강원경제인국제교류협회(회장:고광만·이하 강국회)의 2018년 제1차 정기회가 26일 회원사인 (주)백향우드(대표:양홍춘) 춘천 후평산업단지 제1공장에서 열렸다.

이날 정기회에서는 신규 회원사 확충 등을 논의했다. 이어 회원들은 공장을 견학하며 경영 노하우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2006년 창립한 (주)백향우드는 친환경 합성목재 전문생산업체다. 춘천 후평산업단지 제1공장, 퇴계농공단지 제2공장, 전북 정읍 제3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2009년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해 총 5건의 특허를 등록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직접시공부터 사후 관리까지 책임지는 '원스톱경영체계'를 구축하는 등 업계 발전을 이끌고 있다.

양홍춘 대표는 “‘사람 기술 그리고 미래’라는 사훈 아래 전 직원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룰 혁신적인 제품 개발·생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고광만 회장은 “(주)백향우드의 탁월한 경영 방침과 체계를 공유할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며 “회원사 간 활발한 교류를 통해 든든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회중 강원일보사장은 “강국회가 도를 대표하는 경제단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강릉의 프리미엄 커피 브랜드인 로움(대표:이동희)은 강국회 신규회원사로 합류했다.

윤종현기자